

일반 논문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 적대담론 연구*

: 『로동신문』 속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를 중심으로

임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사회 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담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북한사회가 적대담론을 통해 어떻게 사회의 ‘적’을 인식·구성하며 사회공동체를 구축하는지 살펴본다. 북한사회 내 전통적인 ‘적대적 타자’로서 지목되는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이들 담론의 구성과 변화를 살펴본다. 분석대상은 김정은시대 『로동신문』 속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에 대한 기사(2012~2021)로, 연도별 언급빈도와 주요 기사 내용을 분석, 시기별 담론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으로 북한 제일의 ‘적(원수)’으로 인식되는 ‘미제’에 대한 적대담론은 김정은시대 축소되었고, 특히 2018년도 이후 부정적 용어로서 ‘미제’의 언급은 소멸, ‘미국’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제’와 함께 강조되어 온 ‘남조선괴뢰’에 대한 담론은 2018~2019년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과거 남한 보수 정권, 군부 등에 제한되었던 적대담론이 최근 보수/진보정권 모두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전통적으로 ‘일제’는 ‘미제, 남조선괴뢰’에 비하여 『로동신문』 속 언급되는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4.2.202212.163>

* 이 연구는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연구는, 임수진,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연구: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중 일부의 내용을 심화·발전시킨 것임.

비중이 적었으나, 김정은정권 이후 언급의 비중이 늘어났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기조 속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되던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에 대한 적대담론은, 현실적 필요와 변화에 맞추어 객관적 입장에서 조망하는 ‘미국’, 과거적 존재로서 제한적으로 반추되는 ‘일제’,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항하는 확대된 적대적 타자로서 ‘남조선괴뢰’의 담론으로 변화하였다.

주제어: 노동신문(로동신문),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 원쑤, 적대담론, 김정은시대

I. 문제제기

2012년 북한 김정은정권이 들어서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젊은 세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세계사회에 대한 고립주의를 탈피하고 개방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었다. 이런 전망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과 등이 성사되며 현실화되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후 북한은 미국과 남한 정부를 포함한 외부세계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다시 쏟아내며,¹⁾ 적대적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북한은 단독정부 수립 직후 맑스-레닌주의, 이후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치사상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선전·교육하며 사상적 일체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북한식의 집단정체성 확립이었는데, 이 집단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된 것 중 하나가 ‘적대적 타자’의 설정이었다.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도입한 북한사회는 세계사회를 ‘제국주의’, ‘자본주의’를 추종

1) 「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군사합의 파기 각오」 『YTN』(온라인), 2020년 6월 4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006040801395079>.

하는 거대한 ‘적’으로 삼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립하고자 노력한다.²⁾

김정은 정권 초기 대외 담론은 김일성, 김정일정권에서 보여지는 적대적 태도가 그대로 답습되었다. 핵개발 및 핵실험을 자행하며 핵무력강국을 외치던 북한은 자연히 세계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제재 속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북한 내부 담론에서도 제국주의·자본주의를 따르는 세계사회에 대한 비난 담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8~2019년 김정은은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표출하며 각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로동신문』 등을 통해 대내 주민들에게 공유되는 대외 담론 역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과거에 비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세를 상세히 소개하고, 해외에서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최고지도자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김정은정권 들어와 언론을 통한 대내 사회담론의 기초가 일정부분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³⁾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의 정권 초기 고립주의 기초, 2018년 이후 세계사회 진출, 2019년 다시 고립주의 기조로 돌아오는 듯한 북한의 대외 환경을 고려하여, 북한 내부 담론 속에서 대외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강력한 사상적 일체화를 강조하는 북한사회 내부에서, 세계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난 2018~2019년을 전후하여 정치지도부가 내부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담

2) 와다 하루끼, 고세현 역, 『역사로서의 사회주의』 (파주: 창비, 1992).

3) 실제 김정은정권 출범 이후 『로동신문』을 포함한 대내 언론이 구성이나 형식 면에서 많은 부분 현대화되고, 신속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는 분석이 소개된 바 있다. 강하연 외,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정책연구』 제19권 62호 (2019), 31~60쪽.

론을 어떻게 펼치고 이를 통해 사상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요한 대외담론, 그 중에서도 적대적 타자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Ⅱ. ‘집단적 타자’를 통한 북한식 집단주의의 구성

북한의 대외 적대담론을 사상공동체 구성이라는 틀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의 ‘주체’와 ‘타자’ 인식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타자’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20세기 후반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후기 주체철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근대 주체철학은 관념론 전통으로부터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인간 이성을 ‘주체’로 보고 이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반면 ‘타자’는 ‘주체’에 대비되는 ‘외부적 존재’로서 근대 주체철학이 나타날 시기, 이 ‘타자’의 존재는 사유의 ‘바깥’에 위치하였다.⁴⁾

‘주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20세기 후반 근대 주체철학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며 변화하게 된다. 이는 곧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주체철학에 대한 반성은 대체로 후기 구조주의 학파들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특히 ‘주체’의 형성 과정 속 나타나는 ‘타자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후기 구조주의 학파는 인식의 외부세계에 존재하던 ‘타자’를 인식의 영역 속으로 이동시켜 ‘주체’와 ‘타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영

4) 윤희영 외, 『주체 개념의 비판: 데리다, 라캉, 알튀세, 푸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향력에 집중하였다. 대표적으로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주체의 가변성과 균열을 지적하며 주체를 해체하고자 하였고,⁵⁾ 라캉(Jacques Lacan)은 ‘과정으로서의 주체’를 강조하며 ‘주체’가 ‘타자’의 자극에 따라 계속적으로 반응하며 변화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⁶⁾ 후기 주체철학에 들어와 ‘주체’에 대한 인식은, ‘타자’를 배제한 ‘주체’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부터, ‘주체’의 해체를 통해 ‘주체’의 형성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력자 또는 개입자로서 ‘타자’에 대한 관심으로 그 논의의 쟁점이 변화하였다.

다음과 같은 ‘타자’를 통한 ‘주체’의 자각에 관한 개인적 차원의 논의는, 집단 또는 공동체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집단 정체성’은 공동체(집단)적 자기인식으로서, 이는 집단 내부 소속원들의 소속감뿐 아니라, 집단 외부, 즉 ‘집단적 타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 보다 명료해질 수 있다.⁷⁾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의 생성, 그 정치적 기능과 정당화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로자 외(Hartmut Rosa, et al.)는, 1) 공동체의 존재는 개인을 초월하는 목적(telos)의 관통,⁸⁾ 2) 공동선(gemeinwohl)⁹⁾과 같은 ‘공유

5)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동일성은 동일적이지 못한 ‘차이성’과 ‘타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Jacques Derrida, trans. David B. Allison, “Différence”, *Speech and Phenomena* (Evanston: Northwestern, 1973), p. 130 [윤효녕, 「제2장. 데리다: 형이상학 비판과 해체적 주체 개념」 『주체 개념의 비판: 데리다, 라캉, 알튀세, 푸코』, 15~53쪽에서 재인용].

6) 라캉(Jacques Lacan)의 유명한 거울 단계를 통해 주체에 대한 인식을 ‘자아(ego)’를 통해 설명한다. 자아는 오인을 포함한 상상계와 나르시시즘이 함께 작동하며 창출되는 동일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의식 주체와 의식 주체의 구분을 통해 이 둘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과정으로서의 주체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Jacques Lacan, “Some Reflections on the Ego,”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34 (1953).

7)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1993[1950]); 앤서니 기든스·필립 서튼 저, 김봉석 역,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파주: 동녘, 2015[2014]).

8) 하르트무스 로자 외 공저, 광노완·한상원 역, 『공동체의 이론들』 (파주: 라움,

된 것'의 존재(getelites), 그리고 3) 이를 통한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경계 짓기의 가능성을 통해 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종합하면 집단정체성은 개인 주체가 타자의 사유를 통해 구현되는 것처럼 집단 내외부 경계의 인식을 통해 대자적 개념으로서 구축되고, 또 명료해질 수 있다고 논할 수 있다.

집단 사이의 '경계짓기'는 근대민족국가로 넘어오면서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자(自)와 타(他)의 구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인지체계(예를 들면, 민족)를 형성하였다.¹⁰⁾ 이런 자와 타의 논의는, 사회주의 논의에서 보다 명료하게 나타난다.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우리'와, 부르주아·자본주의라는 '타자'의 존재를 통해 공동체적 경계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코저(L. Coser)는 맑스 논의가 '소외'의 형식을 통해 대자적 존재로서 자의식을 찾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¹¹⁾ 비슷한 논의는 하루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스탈린이 내부와 외부 '적'의 규정을 통해 '우리'라는 자기인식을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스탈린식의 일체화된 국가사회주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¹²⁾

2019), 129쪽.

9) 위의 책, 13쪽.

10) 존 리 저, 임수진 역, 「제3장. 현대국가/현대인족」 『현대인족』 (서울: 소명출판, 2020), 169~171쪽.

11) 루이스 코저 저, 신용하·박명규 역, 『사회사상사』 (파주: 한길사, 2016[1977]), 118~121쪽.

12) “우리에게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 스탈린전집 11권, 와다하루끼 저, 고세현 역, 『역사로서의 사회주의』, 91쪽에서 재인용.

Ⅲ. 북한사회의 ‘적대적 타자’로서 ‘미제 · 일제 · 남조선괴뢰’

1. ‘원썩’의 구축

북한은 상기한 바와 같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은 일체화된 ‘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해 강도높은 사상교양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에 단독정권 수립 초기부터 맑스-레닌주의를 중심으로 집단 내·외부의 경계 구축에 힘쓰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회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곧 맑스-레닌주의에 반하는 여타 사상들, 제국주의, 자본주의 등과 같은 적대 사상에 대한 ‘사상투쟁’의 강조로 이어졌다.

... 우리 인민들은 어떠한 곤난과 장애가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의 피묻은 손에 우리강토의 한치라도 내맡기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적 토대위에서 완전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키려는 결심에 불타고 있는 것은 굳어지고 다져진 철석같은 결심인 것이다.¹³⁾

... 동무들은 또한 정치학습을 통하여 **적아를 똑똑히 가려볼줄 알며 계급 적원썩을 극도로 미워하는 혁명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철전의 원썩는 지주, 자본가 계급이며 미제와 그 앞잡이인 리승만역도들입니다. ... 계급 적원썩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원썩와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혁명적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¹⁴⁾

13) 「원썩와의 투쟁에서 무자비하게 싸우자!」 『로동신문』 1950년 3월 3일.

14) 김일성, 「현정세와 인민군대의 당면과업(1949.10.27.)」 『김일성저작집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다음과 같이 단독정부 수립 초기부터 김일성은 ‘계급적 원썩’을 강조하며 이들과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싸울 것을 강조하였다. 사상적 일체화가 중시되는 북한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타자’, 특히 적대적 대상으로서 ‘원썩’은 매우 중요하게 지목되었다. 이 ‘타자’에 대한 지목은 사회구성원 내외부를 경계짓는 자원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 존재’로서 타파하고 척결해야 할 극단적인 부정의 대상으로 강조되었다. 여기에서 강조된 적대적 대상, 즉 ‘원썩’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를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다.¹⁵⁾

2. 미제 · 일제 · 남조선괴뢰

1) 미제

북한의 ‘사상투쟁’ 속에서 강조된 ‘인민’들의 ‘적’, 즉 북한사회의 ‘원썩’ 중 가장 강조된 대상은 단연 ‘미제’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로동신문』 속에서 ‘미제’에 대한 언급빈도를 통해 담론 강조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림 1>은 『로동신문』 기사제목 속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가 연도별로 언급된 언급빈도를 분석, 정리한 그래프이다. 『로동신문』 기사제목은 기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제목 분석을 통해 주

15) 북한사회 내부에서 적대적 대상은 사실 이들 말고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타파해야 할 사상으로서 제국주의, 자본주의 외에도, 봉건주의, 교조주의, 이기주의, 관료주의 등이 있고, 척결해야 할 구체적 대상 역시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 외에도 지주, 자본가, 부르주아(부르조아) 등이 존재한다. 다양한 적대적 대상 중 실제 북한사회 내부 담론 속 가장 강조한 대상이 누구인지 『로동신문』 속 언급빈도를 통해 살펴보면,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를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임수진,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연구: 로동신문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18~151쪽의 논의를 참고.

제어를 추출, 주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사회재건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사상 교양의 일환으로 ‘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적대담론을 활발히 생산하였다. ‘미제’는 남한을 무력뿐 아니라 자본주의와 같은 사상적 회유를 통해 예속하고자 하는 ‘민족의 원수’로서 설명되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력적 강점과 침략적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지배와 통수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식민지 통치자로서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종식시킴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성취 ...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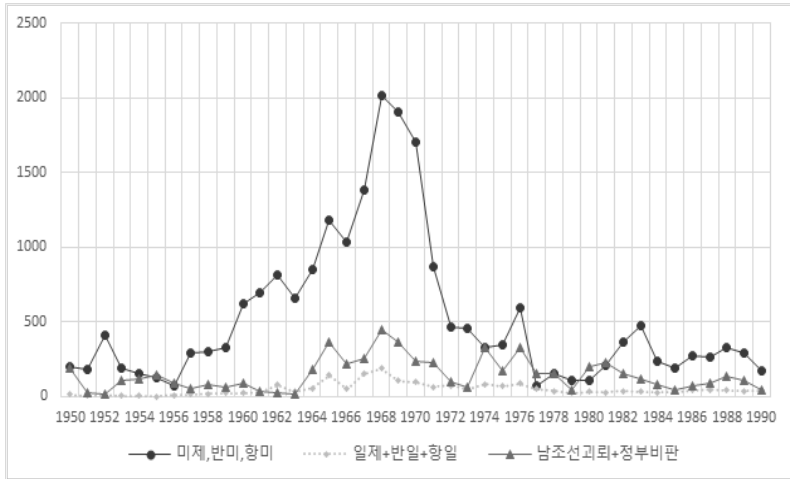
사회주의 진영 속에서 ‘미제’에 대한 비난담론을 활발하게 생산하던 북한은, 1972년 미중 데탕트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속 경제난의 심화 속에서 대외 비난담론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이래 해외 차관을 통해 가까스로 경제를 지탱하던 북한경제는 1974년 외채상환 중단을 선포하였다.¹⁷⁾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북한은 대외 비난담론을 축소하고, 같은 시기 주체사상의 선포를 통해 내제화된 사상적 결속을 도모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시기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담론 생산빈도의 부침을 확인할 수 있다. 변동은 고려하더라도, ‘미제’에 대한 담론이 다른 담론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 「미제는 남조선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 지배자이다」 『로동신문』 1962년 9월 24일.

17) 이종석, 『북한의 역사2 :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2018[2011]), 94~98쪽.

〈그림 1〉 1950~1990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 언급빈도



2) 일제

‘일제’는 한반도 점령 시기 한반도에 많은 약탈과 핍박 등을 가하였으므로 ‘기억의 대상’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를 잊지 않고 경계할 것이 강조된다. 특히, ‘일제’의 경우 ‘미제’와 함께 현재적 시점에서도 과거를 반추하며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복속을 계획하는 ‘원췌’로써 계속해서 경계할 것을 요구한다.

열두살 때 팔도구의 평양에 나와 창덕학교에 다니면서 **일제식민지통치의 부패상**을 더욱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돈많은 놈들과 **일제놈들**은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면서 호화롭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 어째서 **일제놈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¹⁸⁾

‘일제’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볼 때, 사실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일제의 한반도 점령이 종식되면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사라졌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 수립과정에서 ‘일제’ 담론은, 맑스-레닌주의를 중심으로 구축된 북한의 사상공동체 차원에서 명확한 ‘관념적 타자’로서 인식되며 집단적 자기 정체성 구축에 주요한 언표¹⁹⁾로서 사용되었다 할 수 있다.

3) 남조선괴뢰

남한에 대한 입장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난 대상으로서 남조선괴뢰는 남한의 집권정부, 그 중에서도 보수정부 또는 군부를 의미한다.

북한은 일제 해방 이후 남한의 주요 정치 엘리트들을 미군정에 편승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요소’로서 숙청할 대상으로 설명하였다.

지금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주구들을 숙청하는데 대하여 **한국민주당**은 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민주당은 어제까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였던 지주와 예속자본가들의 집단**입니다. 일제가 패망하자 그들은 **친미파**로 돌변하여 일본의 보호대신 미국의 보호를 요구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의 **지주, 자본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주구**가 되지 않은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절대다수가 일제의 손발이 되어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였다는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입니다.²⁰⁾

18) 「교육과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1970.2.17.)」,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379~380쪽.

19) 정문영, 「제3장. 라캉: 정신 분석학과 개인 주체의 위상 축소」, 윤효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55~103쪽.

지금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지연시키고 우리 **조국의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 민주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면 남조선인민들은 이에 고무되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하려는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책동은 저지파탄되고 조국의 평화통일은 훨씬 촉진될 수 있습니다.²¹⁾

따라서 이들은 ‘투쟁’ 대상으로서 강조되었다. 미국, 일본에 대한 비판의 경우 국가 전체를 일원화한, 즉 국가를 하나의 ‘제국주의적 인격체’로서 인식하여 적대화하는 반면, 남한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남한 내 ‘보수 집권세력’에 대한 것으로서, 비판의 대상은 일반 주민들과는 분리하여 논의된다.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남한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며 근로자들이 꺾박받고 착취되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세계로 묘사되었다. 이에 따라 반자본주의 기조 속 ‘남조선의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남조선 괴뢰’를 몰아내고, 북한발 사회혁명, 즉 사회주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역적인 정책으로 민족경제가 파탄되고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착취**가 강화되어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비참한 처지에 빠져 들고 있다.²²⁾

20) 김일성,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1945.10.13.)」 『김일성저작선집 1』 (평양: 인문과학사, 1967), 1~5쪽.

21) 김일성, 「통일전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53.12.18.)」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96~207쪽.

22) 「남조선인민들을 참을수 없는 고통속에 몰아넣는 괴뢰들의 죄행」 『로동신문』 1978월 1월 30일.

IV. 김정은시대 대외 적대담론의 변화

1. 김정은정권 초기

김정은은 집권 초기 정권승계의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를 빠르게 안정화하기 위하여, 김정일이 집권하던 시기 사상담론의 내용과 전파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권 초기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의 권력 승계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주체사상’ 및 ‘김일성주의’를 중심으로 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한 것과 같이, 김정은 역시 집권 초기인 2012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선포하며 정권 및 대중사회의 안정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 대남 및 대미 비난담론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일정권 말기 북핵문제 등으로 세계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북한은 대외 적대담론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대내 사회적 안정화가 무엇보다 우선시되며,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을 회피하기 위해 대외 적대담론은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며 북한은 국제사회 내 고립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장성택이 처형됨에 따라 사회 내부 불안요소가 더욱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북한은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복구시킬 필요가 있었다. 북한은 2014년 1월 16일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의 형식으로 남북 상호 비방의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 것, 미국의 핵 타격 수단의 개입을 금지할 것 등을 남한에 제안하였다.²³⁾ 이후

23)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남조선당

적십자를 통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제안하였다. 당시 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 유화정책을 펼친 것은,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개선을 통해 세계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북한 김정은체제 전환에 따른 불안정성의 부담을 일정정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는 한편 남한과의 관계를 조율하던 북한은, 내부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무력강화에 집중하며 대남 비난(2016년), 핵무력 강화에 따른 대미 비난(2017) 담론을 다시 생산하였다(〈그림 2〉 참조).

2. 2018~2019 북한의 세계진출 노력과 대외 적대담론의 변화

1) '미제' 담론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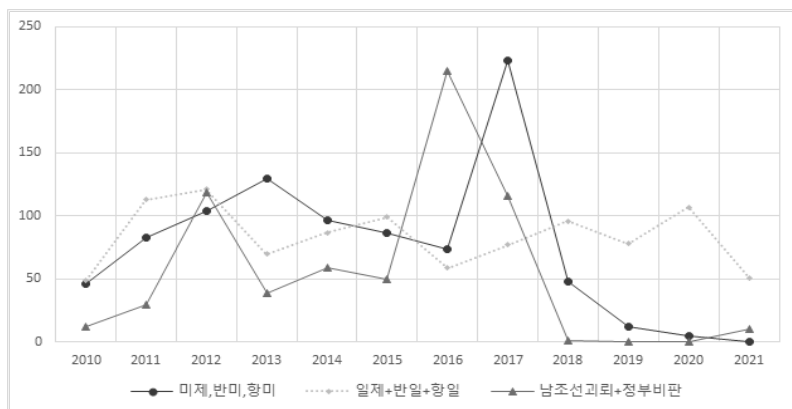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던 대외 적대담론은 2018년 김정은의 세계사회 진출시도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 북한 최대의 적대국으로 인식되는 미국과 정상국가로서의 관계수립의 의지를 세계사회에 전달하는 한편, 이런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북한주민들에게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는 그동안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담론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담론기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수뇌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이다.²⁴⁾

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2014.1.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로동신문』 2014월 1월 17일.

대미 관계에 대한 긍정적 노선변화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공개한 다음의 기사는 북한사회 내부에서 주장하던 기존의 적대적 타자 담론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외관계의 수립에 있어서 기존의 적대적이었던 타자 담론을 대중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조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론정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배치되는 두 논리가 유연하게 조우하도록 논리적으로 담론을 현재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담론전략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일차적으로 담론 내부에서 사용하던 주요한 적대적 대상의 언급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미제’에 대한 언급빈도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2010-2021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 언급빈도



24)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로동신문』 2018년 6월 11일.

〈표 1〉 2012~2021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미제’, ‘반미’, ‘항미’, ‘미국’의 언급 빈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미제	70	92	70	60	47	148	28	0	0	0
반미	34	38	27	27	27	75	20	12	4	0
항미	0	0	0	0	0	0	0	0	1	0
미국	340	425	394	365	278	559	481	452	347	2

2019~2021년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에 ‘미제’가 언급된 빈도가 ‘0’건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북한사회 내부 담론에 있어서 큰 변화의 지점이라 할 수 있다(〈표 1〉 참조). 북한사회에서 그동안 보였던 적대적 타자담론의 중요성과, 그중 ‘미제’에 대한 우선적 강조를 고려한다면, 김정은 정권, 특히 최근 3년간 기사제목 속 ‘미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미제’는 상기하였듯, 세계사회 내에서 제국주의를 선두적으로 이끄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약탈을 계획하는 인류 최대의 적이자 민족 최대의 ‘원수’로서, ‘미제’라는 용어 자체에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다.

대미 담론 관련 북한의 태도 변화는, 부정적 용어 사용의 감소, 즉 언급빈도의 변화뿐 아니라, 담론 내용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제목 내 ‘미국’을 언급한 기사를 보면, 그동안 강조하던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 적대적 태도에서 벗어나, 세계사회의 동향을 소개하는 속에서 간접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서 미국의 사건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시기 미국의 반꾸바봉쇄정책을 반대배격하는 국제적응직임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 **이란의 반미립장**도 나날이 강경해지고 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18년)²⁵⁾

미국에서 11월 현재 대학생들 채무액이 1조 4650억US\$에 달하였다. ...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다. (2018년)²⁶⁾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공보를 발표하여 로씨야의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비법적인것으로** **락인**하였다. (2019년)²⁷⁾

미국에 대한 기사내용은 부정적이지만, 과거와 같이 북한사회와 미국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직접 투쟁해야 하는 적대적 대상으로 논하지 않고, 세계사회의 동향을 설명하며 현 정세를 소개하는 객관적 차원에서 미국을 논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던 ‘제국주의’ 또는 ‘반제’의 담론 속에서도 미국에 대한 내용은 현저히 감소했다. 북한은 제국주의 사상 또는 이론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제국주의 사상에 대한 비난 속에서 제국주의의 주요 행위자로서 미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적대 담론을 생산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로동신문』 내 ‘제국주의자’들을 비판한 1989년과 2019년 두 기사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더욱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 **미제**는 오늘 일부지역에서는 군축도 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대책을 취할것처럼 떠들면서 조선반도에서는 침략무력을 오히려 증강하며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가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사상공세**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헐뜯고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사회주의 나라들의 내부를 교란시키는 방향에서 악랄하고 파렴치하게 감행되고 있다. (1989년)²⁸⁾

25) 「패권주의로 초래되는 국제적인 반미기운」 『로동신문』 2018년 9월 30일.

26) 「미국대학생들의 채무액 최고기록」 『로동신문』 2018년 12월 21일.

27) 「로씨야외무성 미국이 제재를 배격」 『로동신문』 2019년 3월 18일.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견결히 맞서싸워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더욱 횡포해지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내정 간섭과 침략전쟁책동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있다. ... 강자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앞에서는 포악해지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다.** (2019년)²⁹⁾

다음과 같이, 1989년의 ‘제국주의자’는 곧, ‘미제’로서 명확히 지목된다. 이에 ‘미제’의 무력침공을 비판하고, 이에 따른 직접적 위협 속 북한 내부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의 기사에서 ‘제국주의자’는 불특정한 ‘추상적 대상’으로서 직접적인 지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2) ‘남조선(괴뢰)’ 담론의 변화: 보수당에 제한된 적대담론의 생산

이 시기 남한정부에 대한 비난담론 역시 감소하였다. 사실 2017년까지 ‘화성-15형’ 발사 등 대남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보낸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11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관계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기 문재인정부의 대북 포용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북한은,³⁰⁾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전환에 대한 의지를 나타

28) 「더욱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 『로동신문』 1989년 12월 27일.

29)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견결히 맞서싸워야 한다」 『로동신문』 2019년 5월 26일.

30) 북한은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선언’ 발표 다음날 『로동신문』에 다음과 같은 사설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머나먼 유럽땅 한복판까지 찾아가 <<신베를린 선언>>이니 뭐니 하며 지지를 구걸한 현 집권자의 행태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2017년 7월 15일)” 그 외에도, ‘관계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설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기만행위라고 밖에 달리 볼수 없다. (2017.7.20.)”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내었다.

새해는 ...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³¹⁾

남한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사 표명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노선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와 '북한붕괴에 대한 비추진'으로 확정되면서, 남·북·미 간 관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³²⁾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한, 4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성사에 관한 일련의 일정들이 『로동신문』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유되었다. 이후 남한 관련 담론들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관계개선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적대담론은 일정부분 지속되었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이 철저히 리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를 외면한채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 **남조선 군부가 미국과 함께 벌리고있는 련합공중훈련이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³³⁾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로동신문』 2017년 7월 15일; 「온 민족의 대단결에 통일이 있다」 『로동신문』, 2017년 7월 20일).

31) 「신년사」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32) 고유환, 「2018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평화 프로세스」 『정치와평론』 제22권 (2018), 125~141쪽.

33) 「남조선당국의 배신적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것이다」 『로동신문』 2019년 4월 25일.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온 남녘땅을 휩쓰는 반일투쟁 기세에 역행하여 섬나라족속들과의 《타협》과 《굴종》을 극구 선동하면서 저들의 친일매국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고있다.³⁴⁾

남한사회에 대한 비난 담론이기는 하지만, 그 비난의 대상이 ‘남조선 군부’, ‘보수패당’ 등에게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상회담을 주도한 남한의 진보 집권당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며 ‘남조선괴뢰’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비교적 제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일제

이 시기 ‘미제’와 ‘남조선괴뢰’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반면, ‘일제’에 언급빈도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그림 2〉 참조). ‘일제’ 관련 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일본은 북한에서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적대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 속 다른 대상들에 비해 많은 부분 언급되지 못하였다. ‘미제’에 대한 언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적대적 타자의 담론을 가장 활발하게 생산하였던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로동신문』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미제’(반미, 향미 포함)에 대한 연평균 언급빈도가 359여 건, ‘남조선괴뢰’(정부비판 포함) 연평균 언급빈도가 100여 건인데 반하여, ‘일제’(반일, 향일 포함)의 언급빈도는 연평균 62여 건에 불과하다. 일본에 대한 실질적 관심은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8~2019년 적대적 타자에 대한 담론이 줄어든 것에 비하여, ‘일제’ 관련 담론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관련 내용을 살펴

34) 「남조선보수패당의 추악한 친일매국적정체를 폭로한다」 『로동신문』 2019년 8월 23일.

보면, 이는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시대 한반도 내에 자행한 압제와 수탈을 상기하며 제국주의적 파행을 반추하는 내용으로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서 '적대적 타자'인 '일제'가 논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사를 보면, 과거 '일제시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상기하며 '투쟁대상'으로서 '일제'를 각성하기 위한 과거 사건에 대한 기사만이 연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가 감행한 악랄한 비밀전의 내막을 파헤친다(1)—종합적인 모략기재 개발기관-노보리도연구소]

일본의 죄악에 찬 과거력사를 들추어보면 지난 세기 전반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의 확대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감행한 비밀전도 있다. ...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자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각성을 다 시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 죄악으로 간득찬 과거 비밀전자료들을 련재로 폭로한다.**³⁵⁾

[일제가 감행한 악랄한 비밀전의 내막을 파헤친다(6)—조선사람들을 집단 학살한 극악한 범죄]

본토결전준비를 위해 일제가 진척시킨것들중에는 마쯔시로대본영건설공사도 있다. ... **일제야수들은** 저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자리에서 **조선인로동자들을 때려죽였으며 콘크리트혼합물속에 산채로 처넣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

종합하면, 2018~2019년 김정은이 여러 국가 정상과의 회담을 통한 세계사회 진출을 시도한 전후 북한의 적대적 타자 담론은 많은 부분 축소되었고, 내용 역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지목과 비난으로부터 점차 추상적 존재에 대한 간접적이고 관념적 비판으로 변하였다. 그

35) 「일제가 감행한 악랄한 비밀전의 내막을 파헤친다(1) 종합적인 모략기재개발 기관-노보리도연구소」 『로동신문』 2019년 9월 26일.

동안 구체적 대상을 통해 지목되며 적대적 타자로서 강조되었던 ‘미제, 남조선괴뢰’는, 보다 추상적 차원에서 ‘제국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사상’ 자체에 대한 적대담론으로 전환되었다. ‘일제’의 경우 역사 속 과거의 존재로서, 회고하고 기억하는 관념적인 대상으로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3.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대외 적대담론의 변화

1) 사회 내부 대외담론의 축소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2019년 1월 18일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이 방미하여 트럼프대통령과 협의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고위급 외교관들이 1.5트랙 비공개 협상이 진행되며,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김정은이 회담을 위해 출국한 2월 24일부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상세히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은 베트남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1분이라도 더 회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었고, 북한사회 내부에서도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김정은의 모습들을 상세히 보고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였다.³⁶⁾

그러나 잘 알려져있듯,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영변핵시설에 관한 협상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며 실패로 돌아갔다. 하노이 회담 이전 북한 내부에서는 회담에서 논의될 예상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회담 이후 협의된 내

³⁶⁾ 정한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세계지역연구논총』 37집 1호 (2019), 359~382쪽.

용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중요한 계기”, “의미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는 수준에서 정리되었다.

조미최고수회분들께서는 두번째로 되는 하노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가하시였다. ...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 관계이 획기적발전을 위하여 ...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였다. ... 제2차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된다.³⁷⁾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사회 내 외부사회에 대한 담론은 다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던 정상간 만남, 해외 정세 보도 등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우선적으로, 『로동신문』 내 마지막 면, 즉 6면의 내용이 그동안 해외 및 남한의 정세에 관해 소개로 전체 지면이 채워졌던 것에 반하여, 2020년 이후부터는 『로동신문』의 6면에 코로나 감염에 관한 세계 실황을 소개하는 것 외에 다른 해외의 소식은 극히 제한되어 보도되었다. 김정은정권 출범 이후 줄곧 『로동신문』에서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신속하게 보도하고자 하는 변화가 있어왔다.³⁸⁾ 대체적으로 6면으로 이루어진 『로동신문』 지면에서, 마지막 6면 전체가 세계사회의 여러 현황을 소개하는 데 할애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2018년, 6면 지면의 대부분이 외부세계에 대한 소개였던 것에 반해, 2021년 1월부터는 6면의 마지막 일부분에 세계 코로나 정세를 작게 소개하는 것 외에 다른 해외 내용을 보도하

37)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였다」 『로동신문』, 2013년 3월 1일.

38) 임수진,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연구: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표 2〉 『로동신문』 지면 내 해외 관련 기사 비율(굵게 박스 친 부분)

2018.11.25.6면 중 해외 관련 기사	2021.11.25. 6면 중 해외 관련 기사

이런 변화는 북한 사회 내부 주민들을 향한 담론정책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런 변화가 북한의 대외 정세에 대한 무관심이나, 또는 대외 적대성에 대한 소멸이라고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 2020년 3월 이후 북한은 다시 대외 적대담론을 생산하였다.³⁹⁾ 대외 적대담론은 미국과 남한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미국과 남한에 대한 담론을 구체적으로

39) 「매체마다 ‘남한 비난’ 일색…북한의 진짜 속내」 『SBS뉴스』 (온라인), 2020년 6월 6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3301&plink=COYPASTE&cooper=SBSNEWSEND>.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대미 담론

북한은 2017년 핵무력강국의 ‘완성’을 선포한 이후 2018년 들어 세계사회 진출을 시도하며 미국에 대한 노골적 적대담론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북핵으로 인해 세계사회 내 대북제재가 심화됨에 따라 자구책을 마련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사회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개선 노력이 좌절됨에 따라, 『로동신문』의 대외담론 기조는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미 적대담론 역시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런 예측과 달리, 2020년과 2021년 『로동신문』 내 북한의 미국 관련 보도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미 담론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당 주요 사업과 정치엘리트들의 주요 담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4월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보고에서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고 선포하며, 미국과의 교섭 실패에 대해 『로동신문』을 통해 주민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⁴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현실 앞에서 ... 미국은 ...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 북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교섭에는 체제 전복의 위험성에 따른다는 점을 설명하였

40)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다. 이는 북미 간 협상 결렬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하며 대미 외교기조가 변화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20~2021년 대미 담화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북미 간 교착상태의 장기화를 전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고** 하시면서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재개 문제를 여기 저기 들고다니면서 지속적인 대화타령을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직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 흥계를 더욱 로골화 하고있는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행태** 라고 못박으시었다. ... **미국과의 장기적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힘을 보다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상기한 논의에서 주의해 살펴볼 부분이 있다. 적대담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제국주의’의 선봉으로서 사상적 차원에서 강조되던 ‘미제’ 담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 최대의 적대 세력으로서 강조되던 ‘미제국주의’ 개념은 2018년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차원의 ‘미국’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표 1〉 참조). 2019년 이후, 과거와 같이 ‘제국주의’로서 미국을 강조하기 보다는, 세계 주요 정세 속 미국의 대응이나 행위에 대한 각국(사회주의 연대 국가)의 반대성명을 논하는 정도 외에 미국에 대한 논의는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며 비교적 현실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북한의 대외정책 속 대미담론을 과거에 비해 현실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통제하여,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적대화 하는 것이 아닌, 현재

적 차원에서 북미관계를 고려한 유동적 담론으로 그 태도 또는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로동신문』 내에 미국에 대한 언급의 빈도는 줄어들었으나, 사안의 경중이나 현 정세를 반영하는 내용의 민감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대남 담론

북한의 대남 담론은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이중적 태도를 견지한다. 전통적 차원에서 북한이 적대시 하고 있는 대상은 남한의 보수당, 보수정부에 제한되어 있고, 진보당정부가 집권하면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은 대체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여 왔다. 김정은정권 출범 당시 남한은 보수정권이 집권하던 상황이었고, 이에 노골적 적대 및 비난 담론을 생산하던 북한정권은, 진보노선인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부터 2018~2019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전후에서는 남한정부를 대상으로 한 비난담론이 많은 부분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남 담론에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잘 알려져 있듯, 2020년 3월 김여정을 중심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대남 비난담화가 발표되었다. 남북 교류재개 당시 ‘평화의 메신저’로서 국내 많은 관심을 받은 김여정이 대남 담화, 특히 비난담화를 주도한 것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⁴¹⁾ 2020년도에는 총 5회의 대남 비난담화, 2021년에는 총 9회

41) 북한에서 2020년 3월 2일 초대형 방사포가 발사되었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김여정은 직접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2년 전과 180도 달라진 김여정, 왜 대남 비난 ‘선봉’ 섰나」 『머니투데이』(온라인), 2020년 6월 9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914197676727>>;

의 대남 담화 중 8회의 비난담화가 발표되었다. 북한의 『로동신문』이 북한 대내매체라는 점을 주목할 때, 김여정의 수위 높은 대남 비난 발언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로 공개되었는지는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 김여정 대남 발언 정리: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노출여부

2020	담화 주요 내용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20.03.03.	○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한 남한 정부의 ‘강한 유감’, ‘중단 요구’에 대한 비난 “주제님은 실없는 처사”, “꼴보기 싫은 놀음”,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저능한 사고”,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수가”	X	○
2020.06.04.	○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탈북자》쓰레기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 밖에 없다.”	○	○
2020.06.13.	○ 남북공동사무소 철거 예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짓값을 깨개(몽땅)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계획들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	○
2020.06.17.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비난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귀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 ”	○	○
2020.12.08.	○ 북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한 비난 “강경화가 ... 주제님은 평을 하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	X	○

「문대통령, 김여정 담화에 ‘국민이 더 큰 충격’ 우려」 『연합뉴스』(온라인), 2020년 6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177752001>>.

2021	담화 주요 내용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21. 01.12.	○ 합동참모본부의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보도에 대한 비난 “해괴한 것”,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 “특등 머저리들”	X	○
2021. 03.15.	○ 한미연합훈련 비난 “3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당국”	○	○
2021. 03.30.	○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발언에 대한 비난 “잡다한 소리”, “뻔뻔스러움의 극치”, “미국산 앵무새”	X	○
2021. 05.02.	○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	○	○
2021. 08.01.	○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국내 긍정적 여론을 인식, 이에 대한 비난 발언 “때이른 경솔한 판단”	X	○
2021. 08.10.	○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 “미국과 남한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	○	○
2021. 09.15.	○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전력의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충분” 발언에 비난 “대통령의 실언이 사실이라면 소위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우물하기 짝이 없을 것”	X	○
2021. 09.24.	○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발언 중 ‘중전선언’ 제안에 대한 대응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중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 진정한 의미가 없고”	X	○
2021. 09.25.	○ 김여정의 중전선언, 연락사무소 재설치 가능성 언급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의의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X	○

출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은 김여정 담화 관련 북한의 대외 공식 담화를 전달하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로동신문』의 보도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대남 비난발언이 주민들에게 어느 수위에서 공개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2020년 이후 나타난 김여정의 비난 담화가 우리

사회 보수당, 보수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기민하게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발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남북교류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문재인정권 초기, 북한은 대남 비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수의 비난 담론 역시 대체적으로 당시 보수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또는 한미연합훈련과 관계한 ‘군부’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초 하노이회담에서의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대미, 대남 비난 발언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미사일 발사 등은 간간히 있었지만 핵 관련 도발을 자제하고 대미뿐 아니라 대남 비난 발언 역시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2020년 초기 대남 비난담론이 나타날 때에도 이는 통일전선부 대변인 또는 김여정의 발언에 국한되어 발표되었다. 2020년 3월 3일, 김여정의 최초 비난발언이 있었던 것에 반해, 바로 다음날인 2020년 3월 4일, 김정은의 코로나 위로 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21일 서해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같은 해 9월 25일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직접 “대단히 미안”하다는 공식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2020년도까지는 최고지도자와 대남 적대담론 사이 의도적 거리두기가 나타나며, 남북 관계에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김여정을 중심으로 2020년 나타났던 약 다섯 차례 나타났던 대남 비난 발언은, 2021년 들어와 그 빈도가 더 높아졌다. 김여정의 대남 발언은 1월(한 차례), 3월(두 차례), 5월(한 차례), 8월(두 차례), 9월(세 차례)에 나타나, 그 빈도와 사안별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발언의 빈도가 높아지던 중, 2021년 김여정의 담화 속에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는 언급이 나타났다(2021년 8월 10일). 과거와 달리 담론 내부에서 최고지도자의 개입이 언급되어 있는 사실은, 대남 적대담론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사회 내 오랜기간 ‘집단적 원수’로서 강조된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를 고려,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적대적 타자 담론이 김정은시대 북한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북한 ‘제일의 원수’였던 ‘미제’, 즉 미국에 대한 적대담론은 김정은정권 많은 부분 축소되었고, 특히 2018년 이후 ‘미제’와 같은 직접적인 부정적 용어 역시 축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는 선대 최고지도자들을 따라 대외 적대담론을 사용하여 사회 내부의 안정과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김정은정권 초기 ‘미제’에 대한 비난담론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7년 ‘핵무력강국’의 선포와 함께 일정정도 사회 안정화를 구축한 이후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미제’를 중심으로 한 적대담론은 극도로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회담)에서 김정은-트럼프의 협상 결렬 이후, 북한사회 내 대미 적대담론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현재적 시점인 2021년까지 대미 담론은 자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도 이후 『로동신문』 내 해외정세에 대한 보도는 점차 줄어들었고, 2021년도부터는 전세계 코로나 감염현황에 대한 최소화된 보도 외에는 해외 관련 사안들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대미 담론은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 타파’의 원칙 속,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화를 목적으로 담론이 구축되었으나, 김정은정권 들어와 현 정세를 비교적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도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즉 사상에 기반한 무조건적 적대

적 태도에서, 북핵과 같은 현재적 사안을 중심으로 북미 사이 외교적 관계 변화에 따라 사회 내부 담론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둘째, 일제의 경우 북한 대내외 환경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적대담론이 생산되었다. ‘일제’에 대한 담론이 북한정부 수립 이전의 탄압과 핍박의 역사를 회고하고 북한정부의 수립 정당성을 증명하는 내용임을 고려하면, ‘일제’는 구체적인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함의 자체는 현재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과거를 회고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8~2019년 북한의 대외 관계개선 노력이 나타나며 미국이나 남한에 대한 비난 담론은 줄어든 데에 반해, ‘일제’에 대한 비난 담론은 과거와 같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전체 대외 적대담론 비율 중 ‘일제’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에 관한 담론은 대외 관계나 세계정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적대담론이 꾸준히 창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대외관계 회복을 위해 움직이던 2018~2019년 당시에도 ‘일제’ 담론이 내부 주민결속을 위한 가장 주요한 적대담론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북한 주민들의 집단의식 속 ‘일제’의 영향력, 즉 집단적 자기인식, 즉 ‘우리’를 자각시켜 주는 적대적인 ‘대자적 존재’로서 ‘일제’가 여전히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남한에 대한 적대담론은 대체적으로 남한의 보수정부와 같은 특정대상에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 이후 변화되었다. 남한 보수 집권정부는 미군과 결탁하여 ‘남조선 인민’을 착취하고 한반도를 미제국주의에 예속시키기 위해 기능한다는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남조선괴뢰’와 관련한 담론은 북한 사상교양 속 타파해야 할 ‘민족의 앞잡이이자

원췌'로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었다. 『로동신문』 속 '남조선괴뢰'는 '미제' 다음으로 주요한 적대적 타자로서 언급되고 강조되었다. 그러나 남한에 대한 비난담론은 남북한 사이 관계완화 또는 교류확대의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유연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정권 취임 직후 남북한 경색국면 속에서 '남조선괴뢰'에 대한 비난은 '미제'에 대한 비난보다 많았으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며 기존의 '남조선괴뢰'를 통한 비난담론은 북한사회 내부에서 최소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하노이회담에서의 협상 결렬 이후, 김여정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남 비난담론은 어느 때보다 수위 높은 적대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2020년 3월 대남 비난담화는 김여정이라는 '백두혈통'인 정치엘리트로부터 생산된 중대한 대남 적대담론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 관계 사이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모양새였다. 대남 비난담론 속에서도 김정은은 김여정 또는 통일전선부와는 분리된 유연한 외교적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21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속에 (김정은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며, 대남 적대담론의 수위는 높아졌다.

과거 남한 진보정부에 대한 적대담론은 최소화되던 것을 고려할 때, 2020년과 2021년 보여진 남한 대통령에 대한 적대담론은 대남 담론정책이 과거와 다른 변화의 지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 스스로의 실익을 고려하여 이득이 될 경우 남한에 대한 적대담론을 최소화하는 반면, 현재적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수위 높은 적대발언을 서슴치 않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남한 정부를 고려한다기보다, 외교적 차원에서 남북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북한의 새로운 입장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논할 수도 있다.

본 논의의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사회는 하나의 사상공동체로서 집단적 정체성을 보유하는 것에 주요한 관심이 있다.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적대적 타자’의 존재이다. 남북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주요한 ‘적대적 타자’로서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들 담론 역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사상적 기조 속에서 강조되던 ‘미제’와 ‘일제’ 담론은, 현실적 차원에서 실익을 따지며 중립적 관계맺기를 희망하는 ‘미국’과, 과거적 존재로서 관념적이고 추상적 대상으로서 ‘일제’의 담론으로 변화되었고,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보수정권에 국한되었던 ‘남조선괴뢰’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북한에 대항하는 ‘확대된 적대적 타자’로서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 사상교양에 근거한 사회담론이 점차 현실적 필요와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 논할 수도 있다. 변화하는 북한의 인식과 정책에 맞추어 현 시점에서 남북 간 위기상황을 개선하고 타파할 수 있는 변화된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접수: 2022년 11월 15일 / 심사: 2022년 11월 26일 / 게재 확정: 2022년 12월 1일

【참고문헌】

- 김일성,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앤서니 기든스·필립 서튼 저, 김봉석 역,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파주: 동녘, 2015[2014].
- 이종석, 『북한의 역사2 :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2018[2011].
- 존 리 저, 임수진 역, 『현대인족』, 서울: 소명출판, 2020.
- 코저, 루이스, 저 신용하·박명규 역, 『사회사상사』, 파주: 한길사, 2016[1977].
- 하루끼, 와다 저, 고세현 역, 『역사로서의 사회주의』, 파주: 창비, 1992.
- 하르트무스 로자 외 공저, 광노완·한상원 역, 『공동체의 이론들』, 서울: 라움, 2019.
- Derrida, Jaques, trans. David B. Allison, “Différence”, *Speech and Phenomena*, Evanston: Northwestern, 1973.
- Erikson, Erik H.,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1993[1950].
- 강하연 외,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정책연구』 제19권 6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31~60쪽.
- 고유환, 「2018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평화 프로세스」 『정치와평론』 제22권, 2018, 125~141쪽.
- 윤효녕 외 공저, 「제2장. 데리다: 형이상학 비판과 해체적 주체 개념」 『주체 개념의 비판: 데리다, 라캉, 알튀세, 푸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5~53쪽.
- 임수진,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연구: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정한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1호, 2019, 359~382쪽.
- Lacan, Jacques, “Some Reflections on the Ego,”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34 (1953).

-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년 4월 1일.
- _____,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48년 3월 28일)」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인문과학사, 1967.
- _____,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1945.10.13.)」 『김일성저작선집 1』, 평양: 인문과학사, 1967.
- _____,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1963.2.8.)」 『김일성저작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에서 한 보고(1945.10.10)」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통일전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53.12.18.)」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사설) 남조선괴뢰들의 사대매국행위를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자」 『로동신문』 1975년 8월 25일.

「남조선당국의 배신적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것이다」 『로동신문』 2019년 4월25일.

「남조선보수패당의 추악한 친일매국적정체를 폭로한다」 『로동신문』 2019년 8월 23일.

「남조선은 민족성이 없는 암흑의 땅」 『로동신문』 2000년 2월 6일.

「남조선인민들을 참을수 없는 고통속에 몰아넣는 괴뢰들의 죄행」 『로동신문』 1978년 1월 3일.

「더욱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 『로동신문』 1989년 12월 27일.

「로씨야외무성 미국이 제재를 배격」 『로동신문』 2019년 3월 18일.

「미국대학생들의 채무액 최고기록」 『로동신문』 2018년 12월 21일.

「신년사」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은 민족의 대단결에 통일이 있다」 『로동신문』 2017년 7월 2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였다」 『로동신문』 2013년 3월 1일.

-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력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로동신문』 2018년 6월 11일.
-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2014.1.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로동신문』 2014년 01월 17일.
- 「일제가 감행한 악랄한 비밀전의 내막을 파헤친다(1) 종합적인 모략기재개발기관 노보리또연구소」 『로동신문』 2019년 9월 26일.
-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반동성을 가리울수 없다」 『로동신문』 1998년 6월 11일.
-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견결히 맞서싸워야 한다」 『로동신문』 2019년 5월 26일.
-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로동신문』 2017년 7월 15일.
- 「패권주의로 초래되는 국제적인 반미기운」 『로동신문』 2018년 9월 30일.
-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 「문대통령, 김여정 담화에 ‘국민이 더 큰 충격’ 우려」 『연합뉴스』 2020년 6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177752001>>.
- 「매체마다 ‘남한 비난’ 일색…북한의 진짜 속내」 『SBS뉴스』 2020년 6월 6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330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2년 전과 180도 달라진 김여정, 왜 대남 비난 ‘선봉’ 섰나」 『머니투데이』 2020년 6월 9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914197676727>>.
- 「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군사합의 파기 각오」 『YTN』 2020년 6월 4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006040801395079>.

A Study of North Korea's Hostile Discourses on Foreign Societies in the Kim Jong-un Era: Focusing on Discourses of 'Imperialist America(*Mi-jae*)', 'Imperialist Japan(*Il-jae*)', and 'the South Korean Puppet Government(*Nam-Chosun-Goerae*)' in *Rodong Sinmun*

Lim, Sujin (SNU Asia Center)

Abstract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hostile discourses on foreign societies in North Korea, this study analyzes how North Korean society recognizes and constructs its 'enemies' and builds a community using the discourses. The article studies changes of the discourses on 'Imperialist America(*Mi-jae*)', 'Imperialist Japan(*Il-jae*)', and 'the South Korean Puppet Government(*Nam-Chosun-Goerae*)', which have been considered as most important 'enemies' in North Korean society. The article mainly looks at the news articles on 'Imperialist America', 'Imperialist Japan', and 'the South Korean Puppet Government' in *Rodong Sinmun*, and analyzes the annual frequencies of mentioning them in the news titles and the article contents.

In the Kim Jong-un era, the hostile discourses on 'Imperialist America' diminished, and the usage of 'Imperialist America' has been replaced with 'America' since 2018. Also, the production of the discourse on 'the South Korean Puppet Government' reduced during 2018~2019, but it increased again after 2020. The hostile discourse on 'the South Korean Puppet

Government' targeted only at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in South Korea before, but it is now targeted at both the conservative and the liberal governments as its occasion demands. The discourse on 'Imperial Japan' did not take a big portion in *Rodong Sinmun* compared to other discourses mentioned, but its portion has increased in the Kim Jong-un era.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hostile discourses on foreign societies in North Korea have changed in the Kim Jong-eun era, from emphasizing its social thoughts such as anti-imperialism and anti-capitalism to considering more actual and real needs for the society.

Keywords: Rodong Sinmun, Imperialist America, Imperialist Japan, the South Korean Puppet Government, Enemy, Hostile Discourse, Kim Jong-un

임수진 (Lim, Sujin)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에서 공동체 연대, 사회통합, 사회주의 담론, 사회주의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사회 및 도시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북한의 보훈」(in 『보훈, 평화로의 길』)(2021), 「'백두' 구호를 통한 김정은정권의 정치사회화 전략 분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중심으로」(2019), 「분단초기(1945-1967) 북한 고등교육에서의 소련 제도의 전이와 변용」(2017, 공저) 등이 있다.